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경찰청-금감원,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업무 협약 체결

- 지난 4일 경찰청과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, 보험사기,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함.
 - 양 기관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음.
- 최근 3년간 보험종별 사기범으로 검거된 총 인원은 '05년 3,652명에서 '08년 5,468명으로 약 49.7% 증가하였으며,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실종신고 후 보험금 편취, 고의교통사고로 살해 후 보험금 편취, 허위진단서를 작성 등 다양하게 나타남.
 - 그 외 전화금융사기의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'06.6월~'09.3월까지 총 사기 발생건수는 16,030건을 기록해 그 피해액은 1,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불법사금융(불법대부업·유사수신)의 경우에는 '05년 764건에서 '08년 5,423건으로 불법대부업('08년 4,770건)을 중심으로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금융범죄 수사 시 경찰청과 금감원이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, 상호 인력지원, 교육연수과정 참여, 강사 지원,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.
 -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금감원의 경찰수사지원과 공조수사가 확대되고 연수과정 교류를 통해 금융범죄수사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.
 - 또한 양 기관의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를 통해 금융범죄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, 신종금융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(경찰청-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,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,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-보험조사실, 5/4)